

제37대 집행부
제1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1년 1월 21일, 10:30~11:10
- 회의방법 : 온라인(Zoom) 비대면 회의
- 참 석 자 : 김진도, 정수범, 박용조, 선찬종, 이상태, 김인호, 현석환,
김양근, 오정석, 김양호, 이준희, 김재식, 최 원, 서윤석
(14명)

*불참자 : 조용철, 권원강, 김동욱, 옥치일, 최원석, 김태겸
김경운(7명)

I. 성원보고

선찬종 전무이사 : 본회 재적이사 21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II. 개회선언

김진도 회장 : 본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유도회 제37대 집행부 제13차 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III. 회장인사

IV. 전차 회의록 초록 낭독

*전차 회의록 내용

제37대 집행부 제12차 이사회

-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재적임원 21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개최
- 보고사항 2020년 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사항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회장선거 규정 개정의 건,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개 안건 상정
- 심의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회장선거 규정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정관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 후 총회에 상정키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회장님께 위원 구성 권한을 위임해주셨고, 회장님께서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발표하고 명단대로 승인함.
- 도쿄올림픽 대표 선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11월 13일에 공고된 2021년 국가대표 선발에 관련된 선발내규에 따라 올림픽 출전권 안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만 압축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음.
- 10시 23분에 폐회

최 원 이사 : 전차회의록 초록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사 모두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접수

V. 보고사항

1.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 선거 결과

*주요 내용

-제38대 대한유도회 회장 선거 경과 보고

2020년 11월 25일(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7명)

12월 1일(화)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선거일정 확정, 선거인수 배정)

12월 13일(일) 선거일 공고

12월 14일(월)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선거인 명부 작성)

12월 18일(금) 후보자 등록 마감(단독 후보 등록: 조용철 부회장)

12월 19일(토)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등록 후보자 결격사유 심사)

12월 23일(수) 단독 등록 후보자 당선 확정

12월 24일(목) 회장 당선인 공고

12월 28일(월) 등록 후보자 기탁금 반환

2021년 1월 5일(화) 회장 당선인 인준 승인(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77)

최 원 이사 : 보고사항도 미리 유인물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사 모두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재청)

- 원안대로 접수

2. 2021 IJF 월드마스터 파견

*주요 내용

-대회기간: 2021년 1월 11일~13일

-대회장소: 카타르, 도하

-파견인원: 24명(임원 5명, 선수 19명)

-성적: 금메달 3개

12월 28일(월) 등록 후보자 기탁금 반환

2021년 1월 5일(화) 회장 당선인 인준 승인(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77)

(이사 모두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재청)

- 원안대로 접수

3. 기타 사업

*주요 내용

- 제14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1년 1월 18일, Zoom을 이용한 비대면회의)
- 남자대표팀 지도자 채용의 건(송대남 필록스 감독 의결 후 이사회 상정)

(이사 모두 원안대로 접수할 것을 동의.재청)

- 원안대로 접수

VI. 심의사항

1. 남자대표팀 지도자 채용의 건

선찬종 전무이사 : 남자대표팀 지도자의 사임으로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와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 의견이 상신된 남자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채용 대상자는 현재 필록스 남자 유도팀 감독을 맡고 있는 송대남 감독입니다. 주요 입상경력으로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 2012 독일그랑프리 은메달 등이 있고, 지도자 경력으로 중국 국가대표팀 총감독, 남자대표팀 코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모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2.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의 건

선찬종 전무이사 :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각종 증명서 및 단증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실적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우편 발급시 발급수수료 1,000원에 우편요금 2,000원을 합쳐서 3,000원을 받고 있으나, 우편요금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4,000원으로, 단증의 경우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1,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팩스 신청시 발급수수료는 각종 증명서 1,000원, 단증 2,000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 원 이사 :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올리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사 모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3. 승단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선찬종 전무이사 :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제4차 승단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돼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9단 이상의 승단심의 시 심의대상자 소속 시도지부 심의위원의 제안 설명 금지를 심의 참여 금지로 바꾸는 내용과 제18조 제1항 내용 중 제26조, 제27조를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중앙 임원의 경우 대한유도회 주최 행사 참여로 인해 시도지부 행사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승단심의 대상자 종합 평가표의 3번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별첨 2 심의위원회 규정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모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4. 2020년도 사업 및 결산(안) 심의의 건

선찬종 전무이사 :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동트는동해 생활체육대회와 경찰 청장기 전국유도대회를 제외한 13개의 국내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텔아비브 그랑프리, 파리 그랜드슬램, 뒤셀도르프 그랜드슬램의 3개 국제대회 참여와 1회의 대표팀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 예정된 대부분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가운데 승단심사는 승단심의위원회이 서면 결의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사무처와 승단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4회 시행하였고, 유도지 2회 발간, 상임심판 사업, 체육지도자 구술.실기시험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결산부문은 세입부문에서 기금 등 체육회지원금 2,037,835,728원, 자체 855,116,636원, 총 2,892,952,364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부문에서 기금 등 체육회지원금으로 2,037,835,728원, 자체자금에서 772,681,223원을 사용하여 총 2,810,516,951원의 세출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액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대비 52%의 세입 및 지출이 있었고, 82,435,413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6,419,362,773원이며, 기금적립금을 포함한 협회 보유 총액은 7,726,508,335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 원 이사 :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사 모두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5.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선찬종 전무이사 : 2021년에는 용인대총장기전국유도대회를 비롯한 14개의 국내대회 개최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12개 국제대회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주컵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승단심사 4회, 유도지 발간 4회, 온라인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 온라인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상임심판 사업, 장학사업, 올림픽 임원 파견 등이 있으며 선수강화 훈련으로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훈련, 해외전지훈련 3회, 후보선수 국내전지훈련 2회, 청소년대표 국내전지훈련 및 해외전지훈련 1회, 꿈나무선수 국내전지훈련 2회, 생활체육대회 입상자 국제대회 참관단 파견사업 1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본회 예산은 지난 해 사용하지 못했던 올림픽 파견에 따른 대표팀 훈련비와 대회 파견비 증가에 따라 2020년에 비해 205,892,455원이 증가한 5,958,584,980원이며, 2021년 말에는 경기력지원비적립금, 법인기금, 자체기금과실금 전액사용으로 2020년 말과 동일한 6,419,362,773의 기금적립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별첨 4와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 원 이사 : 이 안건도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사 모두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6.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

선찬종 전무이사 : 금년도 본회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법인화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관리지침’에 의거 본회 법인화기금,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자체 기금의 당해연도 과실금 전액을 협회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용도는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 경비와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등 국고보조사업 수행 부족 경비, 선수훈련 및 경기운영에 필요한 용구, 용품구입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금액은 사업 집행시 내부결재 문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말 현재 경기력지원비 적립금은 4,323,650,083원이, 법인화기금은 2,031,126,432원이, 자체기금은 64,586,258원이 적립돼 있으며 2021년에 전체 기금에서 발생할 과실금은 90,834,47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모두 원안대로 동의. 재청)

- 원안대로 승인

VII. 기타사항

김재식 이사 :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유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2020년도에 예정돼 있던 거의 모든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전원 연봉이 삭감되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전국의 유도장도 운영을 못해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유도회 수입 중에 가장 큰 것이 승단비인데 도장이 어려워서 승단비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줄여야 하는데 우리 유도회의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타 종목이랑 우리 유도회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무님 우리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연봉제입니까? 호봉제입니까?

선찬종 전무이사 : 호봉제입니다.

김재식 이사 : 호봉제입니까?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나 실업팀 지도자들도 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도 회장 : 김재식 이사의 건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니 제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힘들고 제38대 회장과 임원진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 이사 :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고 반영되는 문제입니까?

김진도 회장 : 전무이사님,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선찬종 전무이사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도 회장 : 이 사안은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힘들고 김재식 이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차기 회장한테 넘기도록 좋겠습니다. 김재식 이사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선찬종 전무이사 : 다른 협회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이사 : 네, 알겠습니다.

최원 이사 : 도쿄올림픽 개최여부가 3월에 열리는 IOC회의에서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발전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에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발내규에 보면 세계랭킹 50위에 있는 선수들끼리 3판 2선승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김진도 회장 : 그것은 지난 번 이사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찬종 전무이사 : 이번 올림픽 선발전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랭킹 50위안에 있는 선수들만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대회가 뒤에 몰려있어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선수들이 피해보지 않은 선에서 회의를 통해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도 회장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4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반 변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갑자기 회장직무대행을 맡았을 때입니다. 직무대행하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무대행은 안 하려고 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유도인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유도회 강동영 쳐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한유도회가 60개 회원종목 단체 중에 효자종목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VIII. 폐 회

김진도 회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한유도회 제37대 집행부 제13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록 : 과 장 홍 창 신 (인)

확인 : 사무처장 강 동 영 (인)

이사회 참석명단

		
회장 김진도	정수범 부회장	박용조 부회장
		
선찬종 전무이사	김양근 이사	김인호 이사
		
서윤석 이사	오정석 이사	이준희 이사
		
최원 이사	김양호 이사	김재식 이사
		
이상태 이사	현석환 이사	